

한국 근대소설 속 출산하는 여성과 돌봄의 서사화

김 영 경*

요약

이 논문은 근대 의료 제도와 담론이 한국 근대소설 속 출산 장면에서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소설 속 근대 산파의 등장과 출산에 대한 돌봄 인식이 어떻게 촉진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전통적으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자연적, 무속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근대 의료 제도가 도입되고 전문적인 산파 자격 등이 생겨나면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근대 의료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이는 대표적으로 동아일보의 <지상병원>이라는 의료 상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상병원>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자신의 몸을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등은 의료적 관리와 돌봄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근대 작가들은 소설 속 출산 장면을 통해 전통적 관점을 넘어선 새로운 변화와 시각을 서사적으로 담아내고자 시도했다. 소설 속 여성의 출산은 단순한 생리적 과정에 그치지 않고, 극복해야 할 시련이나 수난으로 묘사되며 서사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능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근대적 의료와 돌봄의 혜택을 경험한 여성 인물은 이 과정에서 주체적 자각이나 각성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소설 속 여성의 출산은 그들의 주체적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근대 작가들은 산파나 여의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를 등장시켜 근대 의료 담론을 작품에 반영하고, 여성의 출산에서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광수의 『그 여자의 일생』, 이태준의 『성모』, 심훈의 『직녀성』은 근대 산파가

* 국립목포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조교수

등장하여 출산 과정에서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다. 나아가 이들 작품은 여성의 재생산과 관련한 권리를 암시하는 주제를 전달한다. 근대소설 속 여성의 출산은 자연적, 생리적인 여성의 경험을 다루는 것이 아닌 당시 의료 제도 및 담론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 및 의식 전환의 필요성 등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몸과 삶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중요한 문학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주제어: 돌봄, 의존 노동자, 상호호혜성, 출산 서사, 산파

목차

1. 서론
2. 근대적 의료와 전근대적 관습의 대립-이광수 『그 여자의 일생』
3. 의료적 돌봄과 여성의 주체적 선택-이태준 『성모』
4. 상호호혜적 돌봄과 여성의 성장-심훈 『직녀성』
5. 결론

1. 서론

전통적으로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또한 ‘아이는 삼신할매가 점지해 준다’는 신화적 또는 무속적 관념으로 설명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 생리적 사건으로 다루어졌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적 돌봄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여성의 몸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의료 제도의 도입과 담론의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산파, 여의사, 간호부 등 여성 건강을 돌보는 전문 인력의 등장은 여성의 건강과 출산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키테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산모를 돌보는 산파를 의미하는 ‘돌라(doula)’에서 유래한 ‘둘리아(doulia)’ 개념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 이와 같이 산파는 단순히 출산을 돕는 역할을 넘어, 근대 사회에서 돌봄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1914년 ‘산파규칙’이 공표되고, 1924년에는 ‘산파간호부양성소’가 설립되면서²⁾ 산파와 산파간호부에 대한 근대적 교육과 전문적 자격이 제도화되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점차 수용되었고, 새로운 의료적 접근 방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³⁾ 여러 신문 지면에 의학 상담 코너가 등장한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가정의학〉, 동아일보의 〈지상병원〉, 조선중앙일보의 〈위생문답〉 등이 해당된다. 이 코너를 살펴보면 산부인과 의사 허신, 윤태권, 여의사 정자영 등이 일반 독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으며, 독자들의 질문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들의 답변은 독자들의 전근대적 의료 지식 등을 교정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⁴⁾

1) 에바 페더 키테이/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238-239면

2) 「産婆看護婦指定」 『동아일보』, 1924. 9. 3

3) 박윤재, 「식민지시기 산파제도의 형성과 전개」, 『역사학보』 257, 2023, 188-189면.

4) 〈지상병원〉에 실린 문답 중 몇 가지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유산 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유산된 아이를 함부로 버려 임신이 안되는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반신반의하며 질문한다. 이에 대해 경성제대 산부인과 교실 윤태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또 다른 질문은 노인들의 말을 들으니 “합궁시 속이 마치우는 것”이 병이고 다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지를 질문한다.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못하는 것이 여성의 의무를 못하는 것으로 고통스러워 한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 허신은 불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궁 기형에 대해 알려준다. 이외의 질문에는 약품 “세모리”가 실제 소독 약임에도 피임의 효과가 있는지 묻는 것과 가정에서 유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동아일보의 〈지상병원〉이 일반 독자들이 부족한 의료 지식 등을 알려주고, 일종의 문진 등을 시행하며 어떤 경우 약을 처방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지상병원」, 『동아일보』, 1931. 7. 21. ; 「지상병원」, 『동아일보』, 1932. 9. 2.

동아일보의 〈지상병원〉 코너는 여성 독자들이 불임, 피임, 부인병은 물론 임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 출산 등에 관해 활발하게 질문을 제출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당시 여성들은 〈지상병원〉 코너를 매개로 자신의 신체 증상을 서술하고 궁금증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 증상과 고통을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표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었다.⁶⁾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 지식과 전문적인 돌봄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제도 등이 등장한 시기였다. 1930년대 초반에는 조선 지식인들에 의해 ‘산아제한론’ 등이 제기되었고, 1933년 조선우생협회 등의 성립으로 가시화되며 적극 수용되기도 하였다.⁷⁾ 또한 1930년 12월 ‘유해피임기구취체법’의 공포를 시발로 조선에서 공개적 피임지식의 보급이나 상담소의 설립 등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했다.⁸⁾ 그리고 1920년대 초 러시아를 비롯하여 일본도 타태죄(낙태죄)를 벌금형에 그치게 함으로써 조선에서도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⁹⁾ 이처럼 1930년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의료 지식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관련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5) 고통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상호적 인간에 대한 어떤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모든 증언은 이름 없는 고통이라는 절반의 열림에 대한 응답이다. 아서프랑크/최은경 역, 『몸의 증언』, 갈무리, 2013, 334면.

6) 박윤재, 「백 년 전 임신부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 『출산, 대중매체를 만나다.』, 모시는 사람들, 2022, 41-43면.

7) 소현숙은 1937년 전시체제로 접어들며, 일제가 인구증강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산아제한론들은 그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소현숙, 『日帝 植民地時期 朝鮮의 出產統制 談論의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면.

8) 소현숙(1999), 위의 글, 23면.

9) 이영아,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낙태’ 담론 및 실제 연구」, 『의사학』 22(1), 2013, 166-167면.

출산하는 근대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소설 속 여성 서사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김주리는 ‘출산 서사’로 명명할 수 있는 다양한 소설 속 출산 장면들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출산 과정에서 의료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양상, 가부장적 남성 담론의 강요, 제국과 민족 담론의 교차 속에서 출산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모해 갔는지를 추적하였다.¹⁰⁾ 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 소설 속 여성의 출산 장면을 중심으로 근대 산파의 등장과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근대의 ‘산파’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높은 사산율, 유아 사망률, 임산부 사망률을 낮춤으로써 안정적으로 인구를 확보하고자 ‘산파’ 혹은 조산부(助産婦)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¹¹⁾ 식민지 조선에서 산파가 되기 위해서는 총독부의 원 조산부과를 졸업하거나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리고 산파는 “마음이 온유하고 침착하며 민첩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희생적 정신을 가진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¹²⁾ 근대 조선의 산파는 이전 시대와의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근대 의료 체계와의 접목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과도기적인 존재였다. 근대적 산파의 등장은 근대적 의료 법과 제도, 그리고 담론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이었다. 이는 동시대 소설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이태준의 『제2의 운명』(1933)에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산파술이 없음을 후회하며 이를 배우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안희남의 「에레나의 나상」(1938)에서는 에레나가 산파가 되기 위해 산파 강습소에 다니는 과정이 묘사된다.

출산은 여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사건이지만 근대 시

10) 김주리, 「식민지 시대 소설 속 출산 서사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4, 2010, 31-59면.

11) 大出春江, 「産婆の近代から助産婦の現代へ」, 『助産婦雑誌』 第54巻 第12号, 医学書院, 2000, 1019-1024面

12) 「조선 여성이 가진 여러 직업」(7) 산파, 『조선일보』, 1926.5.17

기 이전에는 거의 서사화되지 못했다.¹³⁾ 그렇지만 1930년대 소설에서 여성의 출산은 서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의미 있는 서사적 전환점으로 그려지기 시작한다. 특히 이 글에서 분석할 이광수의 『그 여자의 일생』(1934), 심훈의 『직녀성』(1934), 이태준의 『성모』(1935)는 모두 1930년대 중반에 발표된 작품들로 여성 인물들의 출산 장면이 중요한 서사적 사건으로 그려진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1930년대 소설 속 출산하는 여성의 서사적 의미와 산파를 통해 드러나는 돌봄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근대적 의료와 전근대적 관습의 대립-이광수 『그 여자의 일생』

이광수의 『그 여자의 일생』은 1934년 2월 18일부터 1935년 9월 26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로, 금봉이 남성 인물들과의 복잡한 육체적 관계와 욕망, 물질적 유혹 등으로 인해 타락하다 종교적인 참회를 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종교적인 참회로 서사를 마무리하는 것인데, 최주한은 금봉의 참회와 자기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¹⁴⁾ 그래서 이 작품의 한계로 작가의 계몽 이념의 당위성 내지는 비현실적인 관념적 한계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¹⁵⁾ 한편 김경미는 이 작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여성 인물들의 관계에 주목했다. 특히 비정상적 여성성의 상징인 금봉이의 타락하는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여성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¹⁶⁾ 실제로 작품에서 금봉이의 출

13) Tess Cosslett, *Women Writing Childbirth: Modern Discourses of Motherhoo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2

14) 최주한, 『이광수 소설 연구 : 애정 삼각 관계의 양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93면.

15) 박혜경, 「계몽의 딜레마- 이광수의 『재생』과 『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6, 2009, 291-321면.

산 장면도 본부인 홍씨와 대비되어 그려진다. 그리고 금봉이는 출산을 계기로 각성과 종교적 참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여자의 일생』에서 금봉이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는 생명의 신비를 느끼면서도 두려움, 죄책감, 반가움 등의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히스테릭한 변화를 겪는다. 그는 남편이 아닌 다른 두 남성을 닮은 아이가 차라리 사라지기를 바라기도 한다. 해산을 앞두고 금봉이는 산파의 도움으로 자신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해 나가며, 그의 출산 과정에서도 산파의 역할은 중요하게 부각된다.

‘얼마나 아프려는고?’

하면 금봉은 무서웠다.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였다.

“아이가 거꾸로 앉지나 앉았어요? 한번 더 잘 보여주세요.”

하고 금봉은 아이가 거꾸로 앉아서 다리가 먼저 나오면 어렵다는 것도 생각하고 아이가 나오다가 걸리면 골을 깨뜨리고 각을 떠서 꺼낸다는 말도 생각하였다. 그리고 잠지에서 본 자간이라는 것도 생각하였다. 아이를 비롯다가 쫓아 버리고 죽는다는 것도 생각되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정신을 안정할 수가 없고, 마치 몸이 허공 중에서 곤두박질을 치는 것같이 붙잡힐 데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왜 겁을 집어 먹어. 죽어 버리면 그만이지. 오래 살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고. 꺼벅꺼벅한 신세 밖에남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¹⁷⁾

여기서 금봉이의 진통 과정은 상세하게 묘사되며, 그 과정에서 금봉은

16) 김경미, 「서사 구조의 변환과 비합리적 세계로의 통합-이광수의 『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4, 2017, 247-274면.

17) 이광수, 『그 女子의 一生』 (131), 『조선일보』, 1935. 6. 1.

생명의 탄생과 신비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산파와 의사의 도움으로 딸을 낳는다.¹⁸⁾ 이후에도 금봉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김광진의 아이를 또 임신하게 된다. 그런데 김광진의 본부인 홍씨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면서 금봉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다. 여기서 금봉의 출산과 본부인 홍씨의 출산은 상반된 모습으로 그려진다. 금봉이는 병원 특등실에 입원을 하고 20여 시간의 진통과 난산을 겪다 아들을 낳는다. 한편 홍씨는 임신 중 몸이 붓기 시작하여 입원을 권유받기도 하지만, 그는 집에서 해산을하기로 결정한다.

의사도 매우 염려가 된다는 말을 비치어서 입원하기를 권하고, 광진도 입원설을 주장하였지마는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나 병원에서 해산을 하면 어린애가 비꼬이는 일이 있다는등, 쥐한테 자지를 뜯겨서 죽는 일이 있다는 등, 못놈이 들어 와서 보고 만진다는등, 미역국밥을 못먹어서 것이 아니 난다는등 하고 정경 부인이 듣지를 아니하여 집에서 해산을하기로 작정이 된 것이었다. 이렇게 작정이 되고는 광진이가 삼청동에 들러서 금봉에게 어린애를 가희동에 보내라는 말을 이르고 은행으로 간 것이었다.

정경 부인은 일변 사람을 할미당과 절로 보내어서 삼신님과 부처님께 빌게하고, 일변 방과 마당을 깨끗이 쓸게 하고, 일변 사당을 깨끗이 소제하여 조상님의 돌아 보심을 축원하고, 일변 정경 부인 자신이 하나님도 불러 보고 삼신님도 불러 보고 부처님, 보살님네며 이름 아는 신장님네도 불러 보고, 일변 부엌에 신칙하여 비린 것을 들이지 말라 하고, 또 일변 녹용을 달여서 산모를 먹이게 하고, 또 일변 의사와 산파를 부르고, 또 일변 애기 받아 잘한다는 일갓집 마누라를 부르고 — 이 모양으로 좋다

18) 당시 산파는 일반사람들에게 대우나 처우가 의사와 비슷한 수준까지 가기도 했지만, 우선 제도적으로 산파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상이 있는 임신부나 태아, 신생아의 처치나 외과수술을 시행하거나 산과 기계를 쓰거나 약품을 투여하는 행위 등은 의사의 진단을 청해야 했다. 박윤재(2023), 위의 글, 198면.

는 것은 다 하면서 며느리 방에 들락날락, 이제나 저제나 하고 오래 기다리던 손주 새끼가 으아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¹⁹⁾

그리고 홍씨의 임신과 출산 과정은 가정의 영역에서 전근대적 관습과 미신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홍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집에서 난산을 겪고, 의사가 기계를 사용하여 출산할 것을 권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시어머니 정경부인의 반대와 시아버지의 망설임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홍씨의 상태는 위독해진다. 이런 설정은 당시 의료 상담 코너 등을 통해 나타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전근대적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 전문적인 의료 지식보다는 주변의 경험이나 미신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²⁰⁾ 따라서 홍씨는 당시 전근대적 관습에 의존하여 자신의 몸을 바라보던 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여자의 일생』에서 근대 산파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금봉이는 본부인 홍씨와 선명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이런 소설 속 상반된 출산 장면은 두 여성의 운명을 암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능한다. 작품 속 여성들의 출산 장면은 근대적 의료 체계와 전통적 관습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당시 사회에서 이루어진 의료와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은유적으로 제시한다.

19) 이광수, 『그 女子의 一生』(187), 『조선일보』, 1935. 8. 20.

20) 실제로 당시 글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를 통해 쉽게 고칠 수 있음에도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무당이나 미신 등에 의존하여, 여러 사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영준은 “병자의 고생과 여자의 귀중한 생식기 전부를 망쳐버리는 일은 막론하고 다행히 화를 면하다해도 이러한 부인이 임신하면 비록 만삭은 되었으나 분만할 도리가 없어서 마참내는 병원을 차저들어오게 되는 것도 각금 보는 일”이라고 하면서 여러 사건을 소개하는데, 당시 이와 관련한 범죄나 사고 등이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이영준, 「질병치료상으로 본 민간비법(미신)에 대하여(9)」, 『동아일보』, 1934. 12. 6.

“기계를 쓰면 어린애가 성할까요?”

하고 광진은 고개를 들어서 의사를 본다.

“성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생명을 다 건지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때에 대감이니 정경 부인이니 하는 사람들이 각각 좁스러운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저편의 비위를 거슬릴까, 서로 제 속의 약점을 책 잡힐까 하여 어름어름하는 것을 볼때에 속으로 분개한 마음이 생겨서 혼자 일어나 산실로 들어 가서 산모의 오줌도 빼고 주사도 놓았다. 만일 필요하면 제 마음대로 수술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이제 경련만 일어나면 이 사람은 죽는다!”

하며 짧은 의사는 산모의 약간 떨리기 시작한 듯한 입술을 들여다 보았다.²¹⁾

결국 홍씨는 자기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달라고 의사에게 간청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홍씨에게 힘을 줄 것을 권한다. 그러다 남편 광진이 의사의 선택에 맡기지만 홍씨는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만다. 홍씨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도 그의 시부모는 겉으로만 극진히 장례를 치르고, 무속의 도움을 받아 부정이 탈 것을 염려하여 죽은 그의 옷을 태운다. 그런 본부인 홍씨의 죽음 소식을 들은 금봉은 도리어 “이상한 충동”을 느끼며 그 비극이 자기 자신도 관련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봉은 일련의 변화를 맞고 광진의 계속되는 희롱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전남편 손명규의 난동 후 가출을 한다. 그 후 자신의 오라버니 인현과 돈도암에서 지내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고 참회하다 여승이 된다.

요컨대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장면은 금봉이가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21) 이광수, 『그 女子의 一生』(192), 『조선일보』, 1935. 8. 26.

출산한 홍씨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전통과 미신, 자연적인 전근대적 출산 방식을 고집하던 홍씨의 죽음은 금봉에게 중요한 각성과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된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금봉이는 자신이 중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거룩한 손을 지닌 간호부’가 되었을 것이라고 후회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그가 겪는 일련의 시련과 각성, 변화의 과정은 여성의 몸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려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은 엄홍섭의 「길」(1937)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경험이 없는 어머니가 전근대적 방식으로 딸 정애의 출산을 도우려 한다. 출산의 고통이 심해지자 정애는 산파를 찾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딸에게 참으라고만 한다.

“어머니…… 산파 좀 불러오세요. 산파 좀…….”

정애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또 한번 이를 악다문다.

“……산파 오문 뭐 허니 돈만 달아나지…… 아랫배에 힘을 쥐라 힘을 쥐…….”

“아이구, 어머니…… 나 죽겠네!”

정애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진다.

“산파 생각 말구 네 힘으로 나아 한다. 첫애는 다 그러니라!”

정애는 이 순간 고통으로 잊었던 설움이 복받친다.

“첫애는 다 그러니라!”

소리가 정애의 귀엔 슬프게도 울린 때문이다.²²⁾

그러던 중 딸 정애는 혼수상태에 빠지고 난산을 겪는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딸을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깨우려 한다. 그리고 이는 산파가 와도 소용없을 것이라며 산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어머니는

22) 엄홍섭, 『여성』 2권 1호, 1937년 1월, 13면

그저 딸에게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라며 한탄하며 좌절한다. 그 사이 아기는 나오다 멈추고 정애는 정신을 잃는다. 어머니는 딸의 뺨을 때리며 깨우다가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파를 부른다. 산파는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하고 강심제를 투여하며 긴급 처치를 한다. 정애는 어렵게 아이를 낳았지만 아기가 울지 않아, 산파는 추가적인 처치를 해서 아이와 산모를 모두 살린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야 정애의 어머니는 산파의 존재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산파의 눈과 손은 산모에게보다도 어린아이에게만 쏠린다. 그의 손은 마치 기계와 같이 어린아이를 다룬다. 눈코만 없으면 한 점의 고깃덩이 같은 피 묻은 어린애를 물에 씻고 옷 입히고 베개에 베기까지의 광경을 내려다보던 어머니는 산파란 꼭 불러야 할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큰일날 뻔했습니다. 아이 모가지가 아이문에 걸려서 오래 쉬면 아이 뿐만 아니라 산모도 살기 어려워요.”

어머니는 산파의 말에 이제야 두 생명이 살았구나 느껴졌다.²³⁾

이 작품은 과부가 된 정애가 홀로 유복자(遺腹子)를 낳으며 모성애를 깨닫는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이다. 주된 이야기는 정애가 난산을 겪는 출산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어머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두 생명의 위기에 처할 뻔한 상황들과 근대적 산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근대 의료 체계가 자리 잡아 가는 과도기적 상황과 산파의 역할이 점차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근대 의료 지식 및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근대적 산파의 등장은 여성들의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돌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근대적 산파의 등장은 의료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3) 엄홍섭, 위의 글, 15면

3. 의료적 돌봄과 여성의 주체적 선택 - 이태준 『성모』

주지하듯 근대적 산파의 등장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과정이 의료적 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당시 산파규칙이 제정되고 산파 양성소가 활성화되면서 산파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자리 잡게 된 결과였다. 산파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기초 의료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전문 인력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신체와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근대 의료 체계 속에서 점차 그 역할과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여성 건강 관리의 중심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²⁴⁾ 그러면서 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의학이 발달된 오늘에는 산모를 도와 아기를 낳게 하는 산파(產婆)가 생겨 두 생명을 완전히 구원할 길이 열렸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올시다. 산파가 되려면 총독부 의원 조산부과(助産婦科)를 졸업하거나 기타 공사립 병원에서 공부하여 소정한 시험에 합격하면 될 것인데, 마음이 온유하고 침착하며 민첩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희생적 정신을 가진 여자가 적당한 직업이라 하겠습니까.²⁵⁾

당시 산파는 직업적 처우가 그리 좋지 않았으나²⁶⁾ 산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필요한 자질 등이 있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근대적 산파는 단순한 직업일 뿐만 아니라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당시 여성들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출산을 시도하

24) 박윤재(2023), 위의 글, 179-202면.

25) 「조선녀성이 가진 여러직업」, 『조선일보』, 1926. 5. 17.

26) 「돈벌이하는 여자직업탐방기」, 『동아일보』, 1928. 3. 20.

27) 이와 관련하여 ‘마더링’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너무 엄격하게 이상화되어 그 역할을 열망하고 수행할 자원이 있는 여성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그러

거나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난산 시에만 산파를 찾거나 과학적인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잘 알려진 산파 김봉점은 조선 농촌에서 여전히 행해지는 미신적이고 비위생적인 출산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의 제시되는 글을 살펴보면 그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위생의 중요성과 산파의 의료적, 돌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산파가 산모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뱀 부인이 해산에 대해서 열 달 동안 정신적으로 얼마나 위험을 느끼며, 아기 낳을 때 그 고통과 초조하고 아픈 심정은 남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한다 하더라도 직접 체험해 본 실감과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과 불안에서 신음하는 산모의 진실한 조력자는 여자로서, 특히 자기가 직접 경험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를 위해 남자가 아기를 낳게 된다면 산파의 직무는 남자가 해야 할 것이며, 산파가 아니라 산남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자는 어머니의 자격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해산을 취급한 귀여운 아기의 제2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안고 깨끗이 목욕을 시킬 때마다 귀엽고 애뜻한 마음과 솟아오르는 사랑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줍니다. 늘 그 머리 위에 건강과 충실을 비는 애정이 제2 어머니 된 산파로서 참된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²⁸⁾

나 다른 문화에서는 마더링이 다른 식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흑인 여성은 어머니의 아이 돌봄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다. 아이 돌봄을 '혈육 어머니'와 '또 다른 어머니'의 일로 구분한 것이다. 혈육어머니는 아이의 생모를 의미하고, 또 다른 어머니는 생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성들의 네트워크다. 더케어컬렉티브/정소영 역, 『돌봄선언』, 니케북스, 2021, 68면.

28) 김봉점, 「산파와 산파의의 구별」, 『동아일보』, 1939. 9. 29.- 1939. 10. 7.

이익상의 「다시는 안보겠소」(1926)는 산모를 돌보는 존재로서 산파의 역할과 그 필요성이 잘 드러난다. 이 소설은 남성 주인공 영배가 아내의 출산을 지켜보며 느끼는 호기심과 공포를 생생히 묘사한다. 영배는 막 해산한 아내의 배를 보고 징그럽다고 느끼며, 해산한 방 안에서는 구역을 느낄만한 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한다. 심지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사람 같지 않고 원숭이 새끼처럼 보인다고도 한다. 이를 통해 당시 남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이 이해와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만의 역할과 고유한 영역으로 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아내의 고통을 온전히 위로하고 돌보는 존재는 다른 아닌 산파다. 산파는 출산 중 고통받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녀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는다.

이태준의 『성모』는 「조선중앙일보」에 1935년 5월 26일부터 1936년 1월 19일까지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이 작품의 미혼모 순모의 모성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²⁹⁾ 『성모』는 정현에게 순결을 잃고 버림받은 미혼모 순모가 아이를 낳고 생계를 책임지며, 아들 철진을 교육하여 훌륭하게 키워내는 이야기이다. 그가 어머니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은 임신과 출산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순모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세밀하게 그려지며, 그가 주체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다.

순모는 정현이 자신을 버리고 동경으로 떠난 뒤에야 임신한 사실을 알

29) 장수경은 이태준의 『성모』에서 모성성을 민족적 위기 극복 내지는 교육과 계몽을 위한 상상된 모성에 가깝다고 보았다. 한편 오양진은 이태준의 『성모』에서 모성성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기획이면서도 치유적 마더후드임을 논의했다. 오양진, 「섹슈얼리티, 여성, 마더후드 -이태준의 『성모』에 나타난 ‘성애’와 ‘모성애’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81, 2018, 173-202면. ; 장수경, 「일제강점기 모성담론에 맞서는 위반의 포즈 -이태준의 『성모』, 『청춘무성』을 중심으로」, 『국제비교한국학회』17(2), 2009, 269-294면.

게 된다. 그는 조선 사람 병원이 아닌 진고개 산부인과를 찾아가고 서양 의사로부터 임신 판정을 받는다. 서양 의사는 순모에게 매달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고, 해산 시에는 반드시 산파를 부르거나 병원에서 출산할 것을 당부한다. 순모는 사생아를 낳아야 하는 현실에 두려움을 느껴 한때 낙태를 고민하지만, 결국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선택한다. 태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과 동시에 상철의 청혼을 거절하며 자신의 직업을 찾아 나서는 전 과정은 꽤 긴 분량으로 서술된다. 미혼모가 되더라도 아이를 낳기로 선택한 그녀는 태교에 힘쓰며 주체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러다 출산을 앞두고 되고, 순모의 어머니는 산파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순모는 어머니의 편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산파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기로 결심한다. 순모와 순모 어머니의 상반된 견해를 통해 이 작품은 근대적 의료 지식과 전통적 관습 사이의 과도기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 산파는 기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며 순모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산파는 출산을 앞둔 순모가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독여 주면서 의료적 돌봄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존재이다.

산파는 보기에 나이부터도 한 사십이나 가까이 된 부인으로 무슨 병원에서 간호부 노릇을 하면서 산파로도 나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우선 인상부터 믿음직스러운 태다가

“내가 인전 살림으루 병원엔 고만뒀어두 일 년에두 아일 십여 명씩 받는다우.”

하고 자상스럽게 웃으면서 의사처럼 아주 자신이 있어 순모의 맥을 다 짚어보고 여러 가지 산모로서의 독특한 증세를 물어보고 하더니 배를 좀 만져보자는 것이었다.

순모는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아이인지 병인지 몰라서 일본日本 의사

에게 갔을 때 골반이 좀 좁으니 가끔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병원에 간다간다하고 버리기만 하던 길이라 선선히 자리에 누워 그 산파의 진찰을 받았다.

산파는 보기에 조금도 덤비거나 어름어름거리거나 하지 않고 방금도 어디서 산모를 다루다 온 사람처럼 태연하였고 미리 들고 온 새까만 손가방에서는 체온계기, 청진기, 소독약, 그의 몇 가지 기구를 꺼내놓았다.³⁰⁾

순모 어머니의 걱정과 달리 산파는 출산 전까지 불안해하는 순모를 안심시켜 주며 도움을 준다. 또한 출산을 앞두고 가진통을 하는 순모에게 조반을 먹게 해주거나, 아이를 낳는 자세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다 점차 진통이 심해지고 난산이 되자 순모는 경련을 하거나 정신을 잃는데, 산파는 노련하게 주사를 놓기도 한다. 그리고 허둥대는 어머니에게 순모를 쉬게 둘 것을 권하거나 침착함을 유지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인 할머니가 솜에 불을 피우며 삼신할머니에게 빌기도 한다. 그래서 산파와 순모의 어머니, 주인 할머니의 조언과 격려, 돌봄 속에서 순모의 출산 과정이 이루어진다.

“힘을 쥐…… 힘을 써요.

어서.” 하고 덤볐다.

그러나 얼굴이 입술까지 새하얘진 산모는 힘을 쓰기는커녕 눈알을 제대로 굴리지 못하고 한참씩 정신을 잃고 늘어지곤 하였다.

“이거 어찌나?”

어머니는 산파만 쳐다보았다.

산파는 어느덧 주사침에 약을 넣어가지고 산모의 팔을 두어 군데나 찔렀다.

30) 이태준, 『성모』, 이태준 전집, 서울출판사, 1988, 301면.

“애가 아니…… 정신을 잃어선…… 이거 어떡해?”

“괜찮습니다……산모가 너무 원기가 부족해 그러니 가만 뒤요.
좀 쉬게……”

하고 산파는 역시 그리 덤비지는 않았다.

“아휴 아유머니 나 죽어 죽어요.”

한참만에 주사기운엔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를 아드득 갈았다.³¹⁾

순모는 결국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고 이후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교육하여 훌륭히 키우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김주리는 이러한 순모의 출산 서사가 근대 의료 권력의 개입과 출산 경험을 가진 노파나 친정어머니, 산파 등의 조력으로 성공적인 출산을 부각시켰다고 논의한다. 그는 순모의 출산을 “의료 권력이 명시하는 모성에 담론에 의해 어머니로 탄생”³²⁾한 사례로 해석하며, 이를 도덕적 순결과 성장을 위한 시련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당시 산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당시 산파는 의료 권력을 대변하는 전문 의료직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돌보는 조력자에 가까운 존재였다. 근대 산파는 출산에 대한 체계적인 근대 지식이 부족했던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의존 노동자”³³⁾에 가까웠다.

박진숙의 지적처럼, 이태준의 『성모』는 “생명 발육의 한 측면에서 모성으로 성장해가는 순모를 통해 당시 조선 사회의 남녀 인식 현황에 대한 문제제기”³⁴⁾를 담은 서사라 할 수 있다. 그런 순모의 모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이 순

31) 이태준, 위의 책, 308-309면.

32) 김주리(2010), 위의 글, 41면.

33) 에바 페더 키테이(2016), 앞의 책, 84면.

34) 박진숙, 「이태준 「성모」의 서사와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모성’이라는 문제.」 『구보학보』 23, 2019, 321-351면.

모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정현에게 버림받은 후 스스로 산부인과를 찾아가고, 모친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산파를 통한 출산을 선택하는 장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모는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스스로 공부하고 사유하며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후에도 미혼모의 삶과 아이의 민적 문제, 양육과 같은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감행한다. 특히 순모의 임신과 출산에서 이루어지는 근대 위생 및 의료 담론에 대한 사유와 선택 등은 여성의 신체와 재생산에 대한 권리와 이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그 중에서도 산파는 미혼모로서 출산을 감행하는 순모를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자로 등장하여, 그가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4. 상호호혜적 돌봄과 여성의 성장-심훈 『직녀성』

심훈의 『직녀성』은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3월 24일부터 1935년 2월 26일까지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제목의 ‘직녀성’은 작품에서 인숙을 부를 때 봉환의 애칭인데 이는 이들 부부가 견우와 직녀에 비유되어 인연을 맺기 어려운 운명임을 암시한다. 남편 봉환은 화류병을 앓아와서 인숙에게 전염시킨다. 인숙은 고통 속에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길 꺼리다 여의사 허정자에게 치료를 받는다. 그녀는 허 의사가 여성임에 안심하고 임독으로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다. 그 후 인숙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 그는 자신이 임독을 앓은 후 임신한 사실에 걱정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허 의사를 찾아간다.

인숙은 의사의 말을 들을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럼 어린애한테까지 병독이 옮았으면 어떡해요?”

“임질은 유전이 안 된다지만 전염이 되기는 첩경 쉽지. 병신자식을 낳

는 건 그아버가 알코올 중독자나 화류병 환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 말을 듣자 인숙은 경련을 일으킨 듯이 불안과 공포에 온몸이 떨렸다.

“선생님! 이를 어찌면 좋아요? 난 죽으면 죽었지 병신자식은 낳기 싫어요! 아시다시피 남편이란 사람하구는 남남간처럼 됐는데 더군다나 자식을 나면 병신자식을 낳으면…….”

하고 말끝을 마치지 못하고 느껴 울며 허 의사의 수술복 자락을 잡고는

“선생님 어떻게든지 애를 안 낳도록 해주세요! 눈먼 자식이나 사지를 못 쓰는 걸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는 얼른 꺼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네, 선생님! 나는 죽는대야 조금두 원통할 게 없으니 적선하시는 셈만 치시고 제 배를 갈라주세요! 어린 걸 꺼내주세요.”³⁵⁾

이 대목은 성병이나 낙태에 대해 기초 지식이 전무한 인숙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허 의사는 인숙을 위로하고 설득하여 그녀가 출산을 결심하도록 돕는다. 인숙은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에서 허 의사의 지속적인 진찰과 진단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가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허 의사는 의사로서 직업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숙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존재이다. 그의 도움과 정서적 지원은 인숙이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그는 인숙에게 신문에 소개된 유명 산과 김윤자를 데려와 소개하며 산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설정을 통해 당시 여의사와 산과가 맡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분이 누군줄 아우? 접때 신문에까지 굉장하게 난 김윤자씨데 종로

35) 심훈, 『적녀성』(하), 글누림, 2016, 241-242면.

한복판에서 더군다나 전차속에서 어떤 여편네가 아이를 낳는다고 사람이 백결 치듯 하는데 마침 이분이 화신상회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다가 정거한 전차 속으로 뛰어올라가선 팔을 걸고 덤벼들어서 어린애를 받아들다우. 그러구는 땃줄을 끊을 것이 없어서 찢절매다가 급한 김에 대들어 이빨로 끊었다우. 그런 고맙구 놀라운 일을 보통 여자가 흉내나 내겠오? 참말로 천직을 위한 용사지요.”³⁶⁾

여기서 언급하는 전차 안에서의 출산은 실제로 당시 적지 않게 신문에 실리곤 했다. 서울 한복판의 전차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파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사례를 참조하여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³⁷⁾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산모들은 산파나 여의사의 도움을 받아 처치 및 돌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게 미담으로 신문에 실리곤 했다. 소설 속 이 대목에서도 산파에 대한 직업적 존중과 그들의 돌봄의 필요성이 잘 드러난다. 산파는 임신과 출산 과정 중 위험에 놓인 여성들을 기꺼이 돌보는 존재들이었다.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출산 이후에도 허 의사가 아이를 돌봐주거나 인숙과 친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허 의사는 전문 직업을 가진 여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료와 돌봄의 교차점에 놓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³⁸⁾

한편 인숙은 아이의 민적을 정리하기 위해 밤중에 아이를 업고 남편 봉환을 찾아 나서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인숙의 아이는 위독해져 입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고 만다. 아이의 죽음 이후 인숙은 모든 희망

36) 심훈, 위의 책, 280면.

37) 「進行(진행)하는電車內(전차내)에서玉童子(옥동자)를順産(순산)」, 『조선일보』, 1930. 1. 6.; 「電車(전차)에서分娩(분만) 黃金町二丁目(황금정이정목)서」, 『조선일보』, 1933. 9. 28.; 「鍾路(종로)복판進行(진행) 電車(전차)속서解産(해산)」, 『동아일보』, 1934. 12. 11.

38) 이와 관련하여 키테이는 초등학교 교사나 간호사를 전문성과 돌봄 사이에 놓인 예시로 들었다. 근대 초기 조선의 여의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직녀성』의 허의사는 특히 이런 돌봄과 의료적 처치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물로 설정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에바 페더 키테이(2016), 위의 책, 97면 참조.

을 잃고 불행한 자신의 일생을 한탄하며 자살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허 의사는 인숙과 아이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책임감을 느낀다. 인숙은 자신과 같은 운명에 놓인 조선 여성들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며, 봉희와 허 의사 등의 도움과 위로로 차차 회복해 간다. 그리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에 이르게 된다.

“내가 의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중병이 든 환자는 무엇보다 먼저 엑스 광선으로 병의 근원부터 비쳐볼 필요가 있을 줄 알아요. 약을 먹이는 것쯤으로는 듣지 못할 경우면, 당연히 큰 수술을 해서 그 병근을 뽑아 버리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하여 우선 우리네 같은 소위 인텔리들은 조선의 가슴 한복판에 청진기를 대볼 줄 알아야겠어요.”³⁹⁾

허 의사는 조선의 현실을 진단할 때, 중병이 든 환자를 수술을 통해 병근을 뽑아야 한다고 한다. 인숙은 성병 감염과 임신, 출산, 아이의 사망 등을 겪으며 조선 여성들의 운명을 자각하는데, 허 의사는 그 근원이 시대 현실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인숙에게 이혼을 권하며 장래 직업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한다. 그러던 중 남편 봉환이 강보배와 결혼을 하기 위해 인숙에게 이혼을 종용하여 인숙은 결국 이혼을 한다. 인숙은 남편 봉환과의 이혼을 “열병을 지독하게 앓고 난 사람이 전신의 세포(細胞)가 바뀌고 온갖 잡병이 다 떨어지는 것과 같이 큰 수술”(389면)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인숙이 겪었던 수난은 조선의 여성이자 남편 봉환으로 인한 것이며 허 의사와 산파를 통한 돌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인숙의 모든 시련의 극복은 이혼을 통해 가능해지며, 그는 유치원 보모 직업을 가질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그는 봉희나 세철 등과의 유치원 공동 운영을 꿈꾸며 허 의사의 주선으로 보육학교에 입학한다.

이 작품의 중요한 의미는 조선 여성이 자신의 운명과 시련을 극복하는

39) 심훈, 위의 책, 380면.

과정에서 여의사와 산파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로 인해 받은 돌봄을 기반으로 다시 돌봄을 실천하려는 직업적 선택을 한다는 데 있다. 이는 돌봄이 생존과 성장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나아가 다른 누군가가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호혜적인 조건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환기한다.⁴⁰⁾ 『직녀성』에서 인숙의 변화와 성장은 개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돌봄을 실천하는 직업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돌보는 존재로 이어진다. 이는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수동적으로 감내하던 여성 인물이 근대 의료 제도의 혜택과 돌봄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각성하며 능동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여성의 취약성과 그로 인한 상호의존성은 돌봄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의료적 지원을 넘어 인권과 사회적 의미를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⁴¹⁾ 요컨대 이 작품은 조선 현실에서 돌봄에서 소외된 한 여성이 현실을 자각하고 나아가 자신이 돌봄을 실천하고자 하는 상호호혜적인 돌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 인물의 일련의 시련과 성장, 주체적인 돌봄의 실천 등을 통해 당시 조선 여성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과 여성의 재상산권과 관련한 맹아적 형태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출산 장면을 중심으로 근대

40) 에바 페더 키테이(2016), 앞의 책, 320면

41) 돌봄 윤리가 인권에 들어오면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인권은 돌봄 윤리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취약성에 대한 인정과 보편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돌봄의 관점에서 인권을 고민하는 논의는 브라이언 터너의 논의를 참조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김영옥과 류은숙은 이를 '돌봄권'과 연결하여 논의를 확장한다. 김영옥·류은숙, 『돌봄과 인권』, 코난북스, 2022, 60-61면 참조.

의료 제도의 도입 및 담론의 형성을 고찰하고, 산파를 중심으로 한 돌봄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1920~30년대에 등장한 <지상병원>과 같은 의료 상담 코너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근대적 의료 담론과의 접점을 형성하였다. 이는 여성들에게 구체적인 신체적 증상과 고통 등을 서사화하고 의료적 조언을 받아 지식을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근대적 산파의 등장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국한되었던 임신 및 출산과 같은 신체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산파는 단순한 출산 보조자가 아니라 의료적 관리와 돌봄의 필요성을 구체화하는 전문 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산파 규칙의 제정과 산파 양성소의 활성화는 산파라는 직업의 제도화와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산파는 여성을 돌보며 출산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근대 의료 체계와 산파의 등장을 한국 근대소설의 서사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돌봄 윤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당시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동시대 문학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근대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의 출산 장면은 단순한 배경적 설정을 넘어 중요한 서사적 장면으로 제시되었다. 소설 속 여성 인물은 근대적 의료와 돌봄을 통해 치유와 각성을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었다. 나아가 이런 장면은 여성들이 돌봄의 가치를 실천하며 자신과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까지 포함하고 있어 당시 사회적 변화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광수의 『그 여자의 일생』(1934), 이태준의 『성모』(1935), 심훈의 『직녀성』(1934)은 근대적 산파의 역할을 중심으로 출산 과정에서 여성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현실을 자각하고 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그려냈다. 이들은 근대적 의료 지식 및 담론,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영역을 돌봄 윤리와 재생산권의 맹아적 형태로서의

문제 제기를 했다. 이처럼 근대소설에 나타난 출산 서사는 단순한 여성의 경험을 넘어 사회적 변화와 의식 전환을 담아내며,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몸과 삶을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학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동아일보』, 『조선일보』,
김성민, 「봄소낙비」 『삼천리』, 1937.1.
심훈, 『직녀성』(하), 글누림, 2016,
엄홍섭, 「길」, 『여성』, 1937.1.
이광수, 『그 女子의 一生』, 『조선일보』, 1934.2.18.-1935.9.26.
이익상, 「다시는 안보겠소」, 『별건곤』2호, 1926. 12. 1.

2. 단행본

- 김영옥·류은숙, 『돌봄과 인권』, 코난북스, 2022.
더케이컬렉티브/정소영 역, 『돌봄선언』, 니케북스, 2021.
김현수 외, 『출산, 대중매체를 만나다』, 모시는 사람들, 2022.
아서 프랭크/최은경 역(2013), 『몸의 증언』, 갈무리, 2013.
에바 페더 키테이/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사토 노리코 외, 『역사 속의 산파와 조산사』, 모시는 사람들, 2023.
Cosslett, *Tess, Women Writing Childbirth: Modern Discourses of Motherhoo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3. 논문

- 김경미, 「서사 구조의 변환과 비합리적 세계로의 통합-이광수의 『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4, 2017, 247-274면.
김주리, 「식민지 시대 소설 속 출산 서사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4, 현대소설학회, 2010, 31-59면.
박윤재(2023), 「식민지시기 산파제도의 형성과 전개」, 『역사학보』 257, 역사학회, 2023, 179-202면,
박진숙, 「이태준 「성모」의 서사와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모성'이라는 문제」 『구보학보』 23, 2019, 321-351면.
박혜경, 「계몽의 딜레마-이광수의 『재생』과 『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6, 2009, 291-321면.
소현숙, 『日帝 植民地時期 朝鮮의 出産統制 談論의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오양진, 「섹슈얼리티, 여성, 마더후드 -이태준의 『성모』에 나타난 ‘성애’와 ‘모성애’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81, 2018, 173-202면.
- 이영아,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낙태’ 담론 및 실제 연구」, 『의사학』 22(1), 2013, 133-178면.
- 장수경, 「일제강점기 모성담론에 맞서는 위반의 포즈 -이태준의 『성모』, 『청춘무성』을 중심으로」, 『국제비교한국학회』17(2), 2009, 269-294면.
- 최주한, 『이광수 소설 연구 : 애정 삼각 관계의 양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大出春江(2000), 「産婆の近代から助産婦の現代へ」, 『助産婦雑誌』 第54巻 第12号, 医学書院

<Abstract>

Women giving birth and narratives of care in modern Korean novels

Kim, Young-kyung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troduction of modern medical systems and discourses transformed perception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care for women, focusing on modern Korean novels. Traditionally viewed through natural, domestic, and shamanistic lenses, pregnancy and childbirth became recognized as processes requiring medical management with the enactment of the Midwife Regu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idwife Nursing Training Center. The Dong-A Ilbo's "hospital on the papers" section highlighted this shift, allowing women to articulate their physical symptoms and supplement their understanding of modern medicine while promoting the spread of medical discourse.

Modern writers attempted to narratively capture new changes and perspectives beyond the traditional perspective through the scenes of childbirth in their novels. In the novels, women's childbirth is not just a simple physiological process, but is depicted as an ordeal or tribulation that must be overcome, heightening the tension of the narrative or serving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particular, female characters who experienced the benefits of modern medical care and care during the proces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ometimes experienced self-awareness or awakening during this process. In this way, women's childbirth in the novel became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ir

independent growth and change.

In particular, female characters who experienced the benefits of modern medical care and care during the proces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ometimes experienced independent awareness or Modern writers reflected modern medical discourse in their works by introducing medical professionals such as midwives and obstetricians, and emphasized the need for medical care and care in women's childbirth.

Lee Kwang-soo's *The Life of That Woman*, Lee Tae-jun's *Seongmo*, and Shim Hun's *Jiknyeoseong* focus on the role of the modern midwife, highlighting the fact that women need care during the birthing process, while also depicting female characters who grow and become aware of their reality through this. These works are closely connected to changes in modern medical knowledge, discourse, and institutions, and convey a theme of implying women's rights regarding care ethics and reproduction through the unique realm of pregnancy and childbirth. These narratives of childbirth in modern novels do not simply describe women's experiences, but also reflect social changes and shifts in consciousness. Thi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women to look at their bodies and lives in a more independent way, and formed an important literary trend.

Key words: medical care, dependency worker, mutual reciprocity, birth narrative, midwife

투 고 일: 2024년 11월 30일

심 사 일: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2024년 12월 27일